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1843년 창간한 '이코노미스트'는 외형은 잡지지만 자신을 신문으로 규정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적 명품·유력 매체다. 마르쿠스도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했다. 그가 '금융 귀족의 유럽 기관'이라 부른 이 신문은 오늘날 '전 세계 엘리트들 위해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극단적 중도'를 표방한다. 극단적 중도는 전통적 좌우를 초월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헌신한다. 극좌극우의 열정 못지않은 열정으로, 중도 입장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극단적 중도다라고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한 2013년 3월 12-13일 콘클라베를 앞둔 2013년 3월 9일자 기사에서 "교회는 여전히 유럽중심적이다"라고 지적하며 "비유럽 출신 교황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1200여년 만에 비유럽 출신이 교황으로 뽑혔다.

그런 '이코노미스트'가 7일 '다음 교황이 아프리카나

'이코노미스트'의 한국인 교황 후보 언급 의미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와 같은 인용 보도가 자주 나오는 국내 매체들이 놓쳤거나 무시한 기사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희식 추기경을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한 것이다.

유희식 추기경이 등장하게 되는 기사의 논리, 배경은 이렇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가톨릭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다. 아프리카 추기경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도박사들의 예측과 달리, 사람을 자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성격의 잘 알려지지 않은 추기경이 만만찮은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기사 말미에 유 추기경은 이렇게 언급했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가끔 언급되는 이름은 한국 출신의 유희식 추기경으로, 그는 교황청의 성직자부를 이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가톨릭 신자들처럼 그도 16세라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다. 유 추기경은 신학적으로는 주류에 속하지만 사회 불의와 정치적 권위주의를 적극적으로 고발한다. 이 점에서 유 추기경은 '만약에나' '그렇지만'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 확고한 가톨릭을 표방한 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과 면모가 비슷하다. 한 종교 관련 저술가는 유 추기경이 교황인 충청도 사람들과 모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충청도 사람들은 친절하고 공손하며, 논란에 직면했을 때 자기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든 교황에게 유용할 것이다."

유 추기경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사 아니다. 유 추기경에 대한 언급은 마치 추신(追伸)처럼 달려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많은 생각거리와 희망거리를 던져준다.

이 기사는 '한국인 교황 대망론'을 발화할 수 있다. 언젠가는 한국인 교황이 나올 것이다. 한국인 교황은 K-가톨릭과 K-리더십의 대표적인 상징이 될 것이다. 물론 K-불교와 K-유교 또한 세계적인 종교적·영적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글로벌 가톨릭 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이다. 성인은 103위나 배출했다. 진보 가톨릭과 보수 가톨릭의 갈등이 유럽·미국·라틴아메리카 등지와 달리 크지 않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한 세대에 이룩한 만큼, 아직 독재와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의 가톨릭 교회에 영감과 방략을 제공할 수 있다.

정치와 종교는 닭고기이다. 둘 다 영성뿐만 아니라 권력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상징이 중요하다. '최초'에 담긴 상징성은 권력의 향방까지 바꾼다. 하지만 관성 때문에 최초는 성취되기 힘들다.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나왔어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 최초의 미시시피강 이서(以西) 출신 대통령은 제31대 (1929-1933)인 허버트 후버다. 상징의 정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 출신 대통령, 강원도 출신 대통령, 통일 이후에는 이북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초'가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정치 발전, 역사 발전이라고 본다.

청춘 특특

누군가에겐 당연한 세상



양미영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조선시대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을 꾸렸다. 기사노동에 익숙해진 여성들이 한글 장제 이후 평등한 언어 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정점이 된 시기는 바로 일제강점기 국제보상은 동부부터였다. 일본에 진 빚을 갚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한 공론이 형성됐을 당시, 집회에서 제시된 보상금 마련 방식으로는 3개월간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 돈을 모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 담배는 남성들만 향유하는 기호품으로 써 이러한 결정은 남성만 국제보상금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여성 배제 논리에 격분한 여성들이 일어나 여러 단체를 설립해 여성들 또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서를 발표했고 이 시기에

생겨난 여성 단체는 전국에 30개가 넘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여성 공론장을 시작으로 여성 대학은 출발했다. 이름만 남녀공학인 남학교에 가지 않아도, 양성평등이라고 외치는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임원이 남성이어도, 여성 대학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규범에서 자유로움을 얻었다. 공용화장실에 구멍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은 삼가야 하며, 때론 아무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는 세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 균형이 흐트러진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시초로서 여성 대학은 가능하다. 사회인이 되기 전 여성들로 가득하고 서로가 안전을 지켜주는 세상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거듭해서 얻어낸 산물을 누구나 배움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학령인구 문제로 여성 대학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당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공학 전환이 학령인구 감소에 있어 당장 나온 대안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저 여성 대학만 문제시 삼는 건 되려 역차별이 아닐까.

학령인구에 따른 문제는 되려 자율형사범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서 일어난다. 현재 자사고의 비율을

보면 전국에 있는 34개의 자사고 중 남녀공학과 남고는 각각 16인 반면, 여고는 2곳뿐이다. 이 말인즉슨 남학생이 자사고를 진학할 때 총 32곳의 선택지가 있지만, 여학생은 그에 절반에 가까운 18곳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서울 소재 자사고로 좁히게 되면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남성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15곳(남고 11곳, 공학 4곳)인데 반해, 여학생은 여고 2곳을 포함해 자사고 6곳에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이다. 남녀공학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학생 선발 비율에 차이를 두는 학교도 있다. 남고였던 전북의 모 자사고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음에도 몇 년간 성비를 2대 1 성비로 차별을 둔다.

이외에도 여전히 사회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쟁점 더 문제가 곳곳에 놓여있다. 여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에도 단순히 여대의 투쟁이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여성의 교육 기관이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잇따랐는지 생각해볼까. 긴 역사 속 수많은 투쟁의 결과를 여대 무용론에 마주 선 이유로, 비논리적인 혐오 담론을 수용하는 것은 그저 과거 지향점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세상이 다른 이들에겐 투쟁과 시위 끝에 겨우 얻어낸 노력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고

을사년(乙巳年) 새해 소망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2024년(갑진년)의 첫날이 엇그제 같은데 2025년(을사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황혼열차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케 한다. 가는 세월 누구도 막지 못하지 않은가? 갈수록 허락간 세월이 서글픈마 느끼면서 겨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당당하고 고왔던 모습은 간데없고 세월 속에 빛바랜 흔적만이 여실하다.

우리는 매년 아쉬움 속에서 해를 보내고 '다시'를 외치며 새해를 맞이한다. 2025년 을사년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박탈한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을사늑약)에 의한 한일의정서가 1905년에 체결된 지 어언 120년이 된 해다. 이를 겨울삼야 온 국민이 함께 국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기에 무척 힘들었던 한 해였다. 그리고 12월 3일 갑작스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특검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경제나 민생이 어려워 국민들은 안절부절못한 삶을 살아온 한 해였다.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은 뒷전에 둔 정치, 고물가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은 경제,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중한 재산피해는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의 쾌거이며 온 국민에게 충격과 감격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렇듯 힘들었던 지난해는 물러가고 희망의 새해가 곧 다가온다. 모든 갈등과 두려움이 새해에는 깨끗이 해결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남의 탓 공방'만을 멈추고 정치가 안정되도록 하면서 사랑과 용서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한다.

정치인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정당 이야기하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에 정쟁은 끝이 없고 갈등은 더욱 증가된다. 정치인들은 정쟁만을 일삼지 말고 대화와 타협,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공생의 정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화정(韓政) 즉 빛나는 정치와 위정척사(爲政以德)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사간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기에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조금 놓으면 작은 평화가 오고 크게 놓으면 큰 평화가 오며 모두 다 양보하면 완전한 평화가 오기에 싸움은 끝나게 된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기 몸이 작아서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부러워만 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기의 몸이 작지만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다고 자랑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찾아서 자랑한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는다. 솔선해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겸손해 보인다.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상대방을 깊은 아량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덕불고 필유인(德不孤 必有鄰) 즉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는 말처럼 덕을 베풀고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다고 본다. US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6위권의 강국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군사력과 최근 무기 수출로 드러난 방위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강대국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올바른 사회, 정의사회, 안전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사랑과 용서, 화합과 소통, 감사하는 해가 되고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올 날들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새해가 되어 모든 국민이 웃음꽃 피우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태평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社說

민심 외면 국민의힘... '국민의 집' 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도 모자라 국민의힘까지 민심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탄핵심판 지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와 내란 수사 등 탄핵 정국을 최대한 단속해 정국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권 관련해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데 이어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날 말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처사다.

당론으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탄핵심판 지연 행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기 위해 '쌍특검법'을 밀어부친다고 주장하지만 명분 없는 꾀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기업들이다. 탄핵이 장기화 되면 내수 침체는 물론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2·3 사태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국적으로 26%나 감소했는데 광주는 35.9%로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전남(30.8%)도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국력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을 낳은 당이다. 그런데도 반성보다는 주도권 다툼에만 혈안이 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집'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국민의 명령으로 당 해체 수준의 물락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쌍특검법 통과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

26일 첫 가동에 들어가는 여야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정 정상화 방안 마련에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여당의 책무를 하는 것이다.

운동 않고 비만을 최고인 지역민 건강 심각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적게 하고 비만율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줄이려는 의지 또한 낮아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닌 수년째 되풀이되는 결과인 만큼 사·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들도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3.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중강도 신체활동이란 고강도 운동을 하루 20분 이상 주 3일 또는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만율(체질량지수 BMI 25 이상)은 전남이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도 32.2%로 12번째로 높았다. 이 같이 비만율은 높지만 살을 빼려는 노

력은 상당히 부족해 체중조절 시도율이 광주·전남 모두 63.9%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다행히 광주지역 흡연율과 전남 지역 음주율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여건상 지역민들의 건강은 삶의 질은 물론 가계 경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경우는 늘어나는 노인 비만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년기 비만은 심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집중관리해야 한다.

광주·전남 보건당국은 지역민들이 손쉽게 운동하면서 비만을 퇴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상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상시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無等鼓

사계절마다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생선들이 있다.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송어이다. 신안 흑산도·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실학자 손암(巽庵) 정약전(1758-1816)은 '자산어보'(玆山魚譜) 비늘이 있는 생선류(鱗類) 항목에서 송어에 대해 "고기살의 맛은 좋고 깊어서 물고기 중에서 첫째로 꼽힌다"고 묘사했다. 여수 거문도에서 소설을 쓰는 한창훈 작가 또한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2010년)에서 송어를 맛깔나게 설명한다.

겨울 송어

"선생의 묘사대로 놈들은 아주 영악하다. 그물이 좁혀오면 바닥에 딱 붙어 눈치를 살핀다. 그러다 틈이 보이면 줄지어 빠져나간다. 풍당풍당, 뛰기도 잘한다. 한번 뛰기 시작하면 보통 다섯 번 정도 한다. 버릇이다. 그러나 송어와 관련된 말이 많다. 이쯤 돼 가지가 넘는다. 신화에서 보면 이름이 많으면 능력이 뛰어나고 의미도 다양하다. 아무튼 맛에 관한 것 하나. '송어 앉았다 떠난 자리 필만 먹어도 달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맛있으면... 송어는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출세어'(出世魚)다. 무안 주민들

은 송어 치어부터 성어까지 모치→참돔어→갱가리→중바리→무거리→눈부름떼기→송어 등 7단계로 구분해 이름을 붙였다. '자산어보'에도 가장 어린 송어를 '모치'(毛峙), '모당'(毛當), '모장'(毛將)이라고 부르고, 작은 송어를 속칭 '등기리'라 부른다고 기록돼 있다. 북 두머리같은 모양을 한 함해만에서 잡힌 송어는 '무안 9미'(味) 중 하나로 손꼽힌다.

무안군이 겨울 송어를 테마로 한 축제를 연다. 새해 1월 18-19일 이틀간 해제면 주민다목적 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송어잡기 체험과

윈데이 클래스(송어초밥 만들기), 새해맞이 소망등 달기 등 다채롭게 펼쳐질 계획이다.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안 도리포와 축제장에서 송어회를 맛보는 미식여행을 하며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것은 어떨까.

"...평평하고 밀리까지 뻗어 눈에 가을가물해야 길인가/ 송어가 뛰어오르는 저/ 저 찰나의 순간간도 서늘한 길이 아닌가"(안도현 시 '송어' 중)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문화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지털부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